

*[2018-04-29 Sun]*

구기영

- 기도 드리겠습니다.
-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수없이 많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눈과 마음은 주님이 베풀어주신 축복들을 잊고 사는데 익숙함을 고백합니다.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색깔을 보게되었을때 울음을 터트리듯이, 다리가 없는 불구자에게 두 다리는 꿈에서 가져보고 싶은 것이 듯이,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소망하듯이, 오늘 하루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자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염원하는 하루이듯이,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축복이지만, 저희는 쉽게 잊어버림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눈과 마음이 축복을 볼수 있도록 어리석은 눈과 마음을 인도하여주소서.
-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언제나 깨어지기 쉬움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시고, 평화에 감사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대화에서 오해를 하지 않는 분별력과,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허끝을 조심할 지혜와, 무엇보다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이끌어주소서. 주님이 때때로 한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주시듯이, 저희 각자에게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 한국에서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 올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바라옵건데, 관련된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고통의 눈물을 없애고, 남북이 한 민족으로써 번영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macs 24.5.1 (Org mode 8.2.10)